

김현준 “이정후, 다음에 만나면 꼭 삼진 잡겠다”

KIA 5년차 투수... 개막전서 데뷔
양현종 이어 등판 1.2이닝 3실점
‘결과’보다 ‘시작’에 의미

“멀티이닝 소화해 줄 선수”
맷 감독 “점점 좋아질 것” 기대감



“미안함”이 가득했던 ‘막 내’의 KBO리그 데뷔전이였다. KIA 타이거즈 투수 김현준은 지난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올해로 5년 차인 김현준은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적은 있지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공익근무를 마치고 올 시즌 그라운드로 돌아온 김현준은 2020시즌 첫날 양현종에 이어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KBO에 자신의 기록을 남겼다.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김현준은 1.2이닝 2피안타 2볼넷 2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완벽한 성적은 아니지만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상보다 빠른 데뷔전이기도 했다. 이날 에이스 양현종이 출격했기 때문에 팬은 필승조의 가동을 기대했었다. 김현준도 “개막전 등판은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첫 타자)모터를 삼진

으로 잡고 나서 편안해졌다”며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템포가 계속 빨라졌다. 아쉬움은 있지만 첫 경기를 했다는 점과 어느 정도 내역할은 보여준 것 같다”고 돌아봤다. 첫 타자 모터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김현준은 3루수 장영석의 수비 도움을 받아 임병욱을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박준태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서건창을 1루수 땅볼로 잡으며 첫 이닝을 잘 마무리했다. 5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김현준은 첫 타자 김하성을 2루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이정후에게 볼넷을 내줬고, 박병호에게는 좌전안타를 맞았다. 1사1·2루에서 이택근을 삼진으로 잡으며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지영에게 적시타를 맞고 고영창과 교체됐다. 이어 나온 고영창이 김현준이 남겨놓은 주자들의 흥인을 허용하면서 이날 김현준의 성적은 1.2이닝 3실점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김현준은 선배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현준은 “(한)승택이 형이 이지영과의 승부 때 직구와 슬라이더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했다.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그게 안타가 됐다. 포수 입장에서 타이밍이 보이니까 승택이 형이 ‘이지영이 슬라이더를 노리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며 “(고)영창이 형도 미안해했다. 선배들이 미안하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했다. 우리는 한팀이다.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첫 경기를 했고, 많은 경기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KIA 1군에서 김현준은 동기 최원준과 함

께 막는다. 또 첫 경기였다든 점에서 실점을 막아주지 못한 선배들은 괜히 미안했다. “선배들 마음이 감사하다. 괜찮다”고 언급한 김현준은 “다음에는 꼭 삼진을 잡겠다”며 키움 이정후를 겨냥했다. 이정후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형·동생 사이. 잘 아는 상대이기 때문에 첫 대결에서 볼넷이 아쉽다. 김현준은 “투 낫 스윙에서 볼넷을 준 게 너무 아쉽다. 작심하고 직구를 던졌는데 조금 벗어났다. 정후를 너무 잘 아는 게 독이 된 것 같다”며 “경기가 끝난 뒤에 통화도 했는데 다음에는 삼진을 잡는 게 내 목표다”고 언급했다. 첫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김현준. 무관중 경기에서 일찍 정정한 선수들을 상대한 것도 김현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다. 김현준은 “(박)준표형이 무관중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지금 던져서 긴장감이 풀리고 나중에 관중들 앞에서 더 잘 던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다”며 “첫 경기 했으니까 이제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더라도 공격적으로 승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새로 시작한 김현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양현종에 이어 김현준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멀티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이고, 시즌 초반에 경기하면서 경기력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스프링캠프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ju.co.kr



덕아웃 T 특특

맷 감독 “KIA가 한국의 양키스? 환상적이야”

▲환상적이다 = KBO가 미국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야구를 기다렸던 메이저리그 팬들은 잠을 잊은 채 5일 KBO경기를 지켜봤다.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KBO리그를 생중계하는 ESPN은 각 구단을 소개하는 기사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6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ESPN이 KIA를 한국의 양키스라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윌리엄스 감독은 “환상적이다. 전통 있는 명문 구단이고, 많은 우수 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최고의 팬들이 있다. 좋은 비교인 것 같다”며 웃었다. 미국팬들의 관심을 끄는 배트 플립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야구를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KBO리그가 노출되는 좋은 기회다. 사실 미국팬들도 메이저리그 다 보지 않는다. 그

런 의미에서 미국팬들이 집중해서 KBO를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 스카우트들도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매년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된다 = 지난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키움과의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잠시 중단됐었다. 경기장 인근 화재로 인한 연기로 경기 도중 선수단이 철수했고, 19분간 경기가 멈췄다. 산전수전 다 겪은 윌리엄스 감독에게도 낯선 경험. 윌리엄스 감독은 “경기가 중단되자 다른 생각보다는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들의 건강이 걱정됐다”며 “35년 야구를 해왔는데 매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팀이 젊잖아요 = 시즌 첫 경기에서 적시타를

치고도 못지 못한 황윤호였다. 지난 5일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황윤호는 1-11로 뒤진 9회말 2사 3루에서 좌전안타를 때리며 타점을 올렸다. 시즌 첫 안타로 타점까지 올렸지만 팀이 대패했기 때문에 황윤호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키움을 압박한 좋은 안타를 만든 황윤호는 6일에는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황윤호는 6일 경기 전 “타점은 올렸지만 팀이 졌다”며 “감독님께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팀이 이기는 데 힘을 보태겠다. 캠프 때부터 3루 연습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

14일 양주서 챔피언십 무관중 개막 박성현·이정은 등 스타급 총출동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KLPGA 챔피언십 때 갤러리 입장 여부를 저울질하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다. KLPGA투어는 6일 무관중 개최라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적인 방역 대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일본 등을 제치고 맨 먼저 투어 재개에 나선 KLPGA투어는 그동안 갤러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지난 두 달 동안에도 국내 골프장에는 적지 않은 내장객이 몰렸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한건도 없었기에 치밀한 방역 대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에서 아직 한 번도 대회가 열리지 않아 KLPGA투어 대회 관전을 원하는 팬들의 성원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거들었다. 이번 대회는 국내 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이보미(32), 박성현(27), 김세영(27), 이정은(24), 김효주(25) 등 세계적 스타 선수와 최혜진(21),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20), 조아



박성현



김세영



이보미



이정은

연(20) 등 국내 정상급 선수가 총출동하기에 팬들의 관전 열망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프로 스포츠에 관중 입장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KLPGA 챔피언십은 관중 없이 치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갤러리 입장을 허용했을 때 얻는 효과보다 만에 하나 확진자 갤러리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충격

이 훨씬 커 귀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무관중 개최뿐 아니라 KLPGA투어는 KLPGA 챔피언십 때 전례 없는 방역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대회 때는 선수 동선을 외부인과 완전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이미 확정했다. 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36홀 규모로서 대회가 열리는 산길·숲길 코스 가 아닌 물길·꽃길 코스는 영업을 한다. 하루 200명 가량의 내장객이 들어올 예정이다. 물길·꽃길 코스 내장객은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만, 출전 선수와 캐디는 부설 골프 연습장 건물을 사용해 아예 내장객과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두 코스 사이에도 로프를 설치해 일반 내장객은 대회 코스로 진입하지 못한다. 국내 남녀 프로골프 대회가 36홀 규모 골프장에서 자주 열리지만, 일반 내장객과 선수 동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회는 처음이다. 이밖에 출전 선수 전원에게 문진표를 받고 발열 검사 후 경기장 입장, 출발다 장비 소독, 선수끼리 2m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美 프로골프 ‘성 대결’

女 마리아 파시, 문라이트 투어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선수인 마리아 파시(22·멕시코)가 남아 미니투어 대회에서 ‘성 대결’을 벌인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파시가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인근에서 열리는 문라이트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고 6일 보도했다. 파시의 코치인 데이비드 레드베터는 “스윙 스피드로 보면 역대 LPGA 투어에서 활약했던 선수 가운데 가장 파워가 좋은 선수 중 하나”라며 “남자 선수들보다 멀리 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파시는 2019시즌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 282.2야드로 2위에 올랐고, 올해는 292.7야드로 1위를 달리는 장타자다. 파시가 출전하는 이번 주 문라이트 투어 대회는 코스 전장이 7300야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워크는 “파시의 클럽헤드 스피드가 시속 175km 안팎인데 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PGA 투어에서는 비록 하위권이지만 미니투어의 선수들과는 충분히 겨뤄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오거스타 내셔널 여자 아마추어 대회에서 준우승한 파시는 이후 프로로 전향했으며 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US오픈 공동 12위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여제들의 전쟁... 반갑다! KLPGA